

## 박은식의 국교론을 통해 본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징

- 천지공사와 지상선인에서 나타난 개인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

김 현 우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 연구원

I. 서론

III. 박은식의 민족주의의 국교론

II. 구한말 근대적 종교 운동과 신종교 발생

I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박은식의 국교론에 나타난 민족주의의 관점을 통해 대순사상을 분석하여 그 민족주의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sup>1)</sup> 박은식에 관한 연구는 성리학, 양명학, 대동사상 등 철학·사상분야, 『한국통사(韓國痛史)』(1915),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1920)

---

1) 박은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로써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신용하,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사회사』 (서울: 나남출판사, 2004)  
박정심, 「백암 박은식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박정심, 「박은식의 사상적 전환에 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12 (1999)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윤병희, 「백암 박은식의 역사의식 :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논총 : 수춘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탐구당, 1992.  
김현우, 「양계초와 박은식의 신민설과 대동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등 역사분야, 영웅소설 등 문학분야 그리고 독립운동과 관련한 정치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유독 종교론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sup>2)</sup> 그러나 박은식은 상경 초에 저술된 『겸곡문고(謙谷文稿)』(1901)부터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1909년 『서북학회월보』에 기고문 중에는 유교의 양지(良知)를 기독교의 성령(聖靈), 불교의 화두(話頭)와 함께 강조하거나 유교의 개혁을 촉구하는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 같은 논설이 있는 등 그는 『한국통사』(1915) 이전부터 종교를 중요하게 인식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통사』에는 유교, 불교, 도교 및 기독교(구교, 개신교) 이외에도 당시 신종교였던 동학(東學), 그리고 그 후신인 천도교(天道敎)와 시천교(侍天敎), 단군을 교조로 모시는 대종교(大宗敎) 등을 그의 국교론에 입각하여 설명,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천도교와 대종교는 국교로 시천교는 친일종교로 명시하면서 신종교를 국교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민족우선주의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 주체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근대적 민족국가주의의 가까운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근대적 종교론은 실존적 자아를 인식한 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때 개인은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며, 이 주체성이 사회로 확장되었을 때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그가 종교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내

2) 박은식 연구 중 국교론을 비중있게 언급한 논문은 신용하, 「박은식의 역사관(상)」, 『역사학보』 90 (1983)와 김현우, 「양계초와 박은식의 신민설과 대동사상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의 두 편이 거의 유일하다. 신용하는 ‘박은식이 종교(국교)를 국가의 혼 중 하나로 인식했지만, 터키의 이슬람교나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같이 한국의 국교를 단일종교로 정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 혼백론(國家魂魄論)에서 말하는 국혼이란 국사(國史)’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김현우는 박은식이 『겸곡문고』(1901)와 『학규신론(學規新論)』(1904)에서 이미 유교를 중심으로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1909년 저술된 「고아학생제군(告我學生諸君)」이나 「유교구신론」 등과 같이 유교의 양지론을 중심으로 당시 한국의 종교를 통합하려 하였고, 『한국통사』의 혼백론에서는 단일한 국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책 「第60章 日人束縛各敎會」에서 볼 때, 기존 종교 9개와 천도교, 대종교 등 신종교 2개를 모두 국교로 인정하면서 국교도 국사 못지않게 중시 여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우, 앞의 글, pp.119-127 참조.

용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대로 종교적인 자아관이 근대적 민족주의로 연결된다고 가정할 때, 신종교 특히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그는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종교를 통한 근대적 의식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교를 지정하기도 했다. 다만 그가 1911년 만주로 망명하였고 또 1926년에 작고하여 일제 강점기 한국 사회의 신종교 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종교에 대한 그의 민족주의적 분석은 완결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은식이 국교론을 통해 미처 분석하지 못한 신종교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일제시기 이후 출현한 제증산교단의 공통교리 즉 구천상제의 천지공사, 해원사상 및 지상선인과 이를 통해 구현된 종교적 인간관(또는 참인간)을 민족주의와 연관시켜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먼저, 박은식 당시 한국의 종교 지형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그의 사상 속에 나타난 유교, 기독교 그리고 신종교의 민족주의적 교리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순사상이 역사적으로 보여 온 민족주의적 특징을 박은식의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고 평가해 보았다.

## II. 구한말 근대적 종교 운동과 신종교 발생

통상 종교는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존재만을 강조하는 특수성보다는 인류애, 세계평화 또는 이상사회 등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해당 종교가 속한 국가 또는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할수록 종교의 보편성은 민족주의,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민족국가주의(nation-state)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하는 양상이 나타나곤 한

다.<sup>3)</sup> 한국에서도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해방과 뒤이은 한국전쟁, 1960·1970년대 산업화라는 국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기존 종교는 종교적 보편성보다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신종교도 발생하게 되었다.<sup>4)</sup> 특히 후자는 전자에 비해 더 강한 민족주의적 특징이 있었다.

기존 종교 중 유교는 구한말에 이르러 조선시대 국가체제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는 잃었지만, 여전히 사회 속에서 주요 종교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보수적 유교계는 사상적으로 도통론과 중화주의에 기반한 봉건지향적이었고, 내용적으로도 호락논쟁, 심설논쟁 등 18세기 이후 지속된 사변화의 경향을 띠고 있어 당시 진화론적 국제질서 속에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웠다. 이에 개혁적 유교지식인층과 당시 국제정서에 이해도가 높았던 관료층 등은 유교의 개혁을 통해 근대적 국가형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중 1909년에 박은식 등 일부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이 기존 유교를 중화주의에 입각한 사대주의라 비판하고 대동교(大同敎)를 창설하여 구세주의, 대중주의, 민족주의 등을 강조한 것은 좋은 예이다.

기독교계도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국가 형성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개신교는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다수의 학교를 설립하여 선교와 동시에 근대적 지식인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900년대 중후반에는 북삼도를 중심으로 급격한 교세 확장을 가져왔고, 당대 후반에는 유교와 더불어 한국의 주요 종교로써 교세를 구축하는 등 빠른 교세 확장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진하

3) 이하 민족주의는 근대 유럽에서 발생한 민족국가주의 즉 nation-state를 의미한다.

4) 근대 한국에서 종교는 민족이나 국가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과거 구한말 개신교의 경우 선교와 동시에 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배출되었다. 현대도 개신교는 세계적 교회 절기에 없는 3.1절과 광복절을 절기로 기념하는 교회가 많으며 특히 일부 교회와 교단은 반공주의와 연결하여 한국 사회의 보수적 정체성을 재생산하기도 하는 데, 이 같은 사회 참여의 배경에는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구한말 이후 발생한 신종교에 경우 대부분 한민족에 의한 세계 구원(후천개벽)을 언급하고 있어 기존 종교보다 강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는 주도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sup>5)</sup>

불교계는 조선시대 교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임진왜란시 승병으로 참전하는 등 민족주의적 성격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 내 유교, 기독교, 불교 등 기존 종교계는 이미 포교 및 선교방향을 민족주의로 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존 종교계들 이외에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다수의 신종교 즉 대종교, 동학, 제증산교단, 원불교 등도 이 시기에 출현하였다. 이들 제종교들은 근대적 제도개혁, 반외세, 민족정신의 발현 등을 제시 하면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있었다. 이중 대종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종교는 영, 호남 등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히 포교 하였다. 이 지역은 유교적 배경과 동시에 과거 신라, 백제, 고려 등의 불교 및 도교관련 유적들도 잔존하고 있었고 무속신앙도 중앙보다 더 활발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남부 지역은 유·불·도 삼교를 통섭하는 신종교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이들 신종교는 비록 인류보편성에 기반한 교리와 동시에 후천개벽사상 즉 한민족을 통한 이상 실현이라는 민족주의적 특징도 공유하고 있다.

당시 한국의 종교지형을 보면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의 북삼도는 개신교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과 영남북부 등은 전통 유교가 그리고 삼남지방을 중심으로는 신종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적으로 유교의 강세지역인 서울 중부와 경북을 제외한 북삼도와 삼남지방의 경우는 당시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고, 옛 국가인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의 유적이 남아있었으며, 지리적으로도 대륙 및 해양과 연결되어 신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기존 유교 체계가 붕괴하고 개신교(북삼도)나 신종교(삼남)의 발현과 성장이 가능

5) 이러한 교세 확장의 결과로 당시 유력일간지인 《대한매일신보》는 개신교를 유교와 더불어 한국의 2대 종교로까지 설명하게 된다. “기자가 전일에도 대강 의론하바 | 잇거니와 지금 한국에서 행하는 종교 중에 가장 강대헌 세력을 점령한 자는 기독교와 유교의 두 종교 | 라.” 「두 종교가에 향하여 요구하노라, 《대한매일신보》 1910. 4. 15. p.1 논설.

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종교들과는 달리 기존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를 토대로 신도들에게 부당한 헌금을 요구하는 종교와 종단도 발생했고, 동기에서 친일 행위를 목적으로 결성된 종교단체나 결과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단체들도 있었다. 다만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국의 주요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민족국가주의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종교적 민족주의는 박은식이 지적했듯이 종교적 평등과 자기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일정한 논리 즉 자기 교리가 뒷받침하고 있었던 점도 중요한 사실이었다.

### III. 박은식의 민족주의 국교론

#### 1. 국교론의 사상적 기반 : 양지(良知)와 기독교

박은식은 비록 유교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지만, 여타 제종교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는 소중한 그릇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6)</sup> 그러므로 그는 『한국통사』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세계 종교 이외에도 민족종교인 대종교, 동학 등을 동등하게 설명하였다.<sup>7)</sup> 또한 기독교에 경우는 구교(Catholic)와 개신교(Protestant)로 나누어 전래과정을 적고, 북삼도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확산을 기록하였으며, 다음 장에서는 일제가 당시 한국 개

6) 박은식, 『韓國痛史』 「第60章 日人束縛各教會」 참조. 본 연구의 박은식 저본은 『백암 박은식전서』 (동방미디어, 2002). 하지만, 이외에도 단국대에서 발행한 『박은식전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상해본 등 이관본과 다수의 번역본이 통용되고 있어, 해당 페이지를 명시하지 않고 장명이나 편명을 명기함으로써 이를 대신하였다.

7) 『韓國痛史』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종교로써 창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창립하였더라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 까닭에 대순사상을 비롯한 제증산교단, 원불교 등의 신종교가 언급되지 않았다.

신교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제압하기 위해 꾸민 ‘120인 사건’을 기록하는 등 다른 종교보다 비중을 높게 두고 있었다. 유독 개신교에만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당시 한국에 파견된 미국선교사들이 현실적으로 일본 통감부나 총독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에게 근대적 민족주의를 심어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개신교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다급해진 일본은 심지어 자국인 출신 기독교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sup>8)</sup>

박은식은 개신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교리에서 찾았고 성령론에서 그 단초를 얻게 되었다. 그가 성령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크게 두 곳이다. 먼저, 그는 1909년 3월 『서북학회월보』 「고아학생제군(告我學生諸君)」에서 ‘양지(良知)’와 기독교의 ‘영혼’ 즉 ‘성령’을 같은 것을 평가했었다. 이 글에서 박은식이 청년들에게 ‘양지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인간 내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sup>9)</sup>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왕양명실기』에서 ‘예수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한복음 4장 4~42절)와 그 내용인 ‘생명수’를 언급하고 있다. 이 대화는 기독교 성령론을 다룬 요한복음 3장 ‘예수와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때 ‘생명수’도 ‘성령’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논의를 위해 잠시 기독교의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성령론을 보도록 하겠다.

8) “모처에서는 일인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예수교를 확장할 계획으로 방금 운동하는 중이라더라.” 「별운동다하네, 《대한매일신보》 1910. 7. 1.

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 : 20, 『한글개혁신경』;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 : 20, *New International* 본 연구에서는 박은식과 개신교간의 교리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한국의 개신교계가 정한 표준 성경인 한글개혁신경을 사용한 것이 다른 성경판본보다 개신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보다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판본을 지문으로 사용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sup>10)</sup>

기독교에서 성령은 기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을 구분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이 성령은 개인이 의지만 있다면 신에 의해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개인은 신에게서 성령을 받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또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를 수 없는 위대한 신의 힘으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신교의 교리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1900년대 한국에서도 일어났다. 그 출발은 원산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기존에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신과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하자 이에 많은 신도들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부터였다. 이 운동은 1907년 평양대부흥회를 정점으로 북삼도 지방에서 기독교가 대부흥을 이루게 된다. 동시에 이들

10) 요한복음 3 : 5-8, 『한글판 개혁성경』.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For no one could perform the miraculous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him."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How can a man be born when he is old?" Nicodemus asked. "Surely he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his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John 3: 1-8, New International.*



기독교의 부흥은 도박을 금지하고, 지나친 음주를 절제하게 하며, 가정을 지키는 등의 개인의 도덕성 강화도 가져왔다.

박은식은 황해도 출신이었고 젊은 시절 평양에서 하급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기독교 운동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그는 이 기독교 부흥운동의 근원이 성령(영혼)론에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는 이 성령론을 외부에 의한 교육이 아닌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선한 양상 즉 양지의 회복이라는 유교적 이론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의 영혼(성령)을 맹자(또는 陽明)의 양지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왕양명선생실기』(1910)에도 이어진다. 그는 여기서 「예수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요한복음 4장)」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은 3장과 더불어 성령에 대해 언급한 장이다. 3장과 4장에서 예수는 성령을 바람(3장)<sup>11)</sup>과 생명수(4장)로 비유하고 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이유는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귀결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의미에서였다. 이 점은 박은식이 기존 고정적 양지관(良知觀)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에 대한 자기 변화의 근거로 삼기 위해 '유행불식(流行不息)'으로 해석한 것과 연결된다.<sup>12)</sup>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의 일면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기독교의 이해는 『왕양명실기』의 양지론과도 관련된다. 그는 양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良知者는 自然明覺之知오 純一無爲之知오 流行不息之知오 泛應不滯之知오 聖愚無間之知오 天人合一之知니<sup>13)</sup>

특히 양지를 유행불식(流行不息), 범응불체(泛應不滯)로 설명한 것

11) 신약성경에서 성령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다양한데, 위에서 언급한 요한복음의 '바람', '생명수' 이외에 마태복음(3:16)에서는 '하늘과 인간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비둘기'로도 설명하고 있다.

12) 流行不息은 원래 주역에 기초한 것이다.

13) 박은식, 『왕양명선생실기』(1910)

은 양명의 양지와는 다른 것으로 한편으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성령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자 다른 한편으론 『주역』의 변통론적(變通論的)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변통론이란 ‘시대의 흐름을 자각하여 그 시대에 맞게 삶을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은 당시 우승열패의 국제질서와 조선의 대응을 변통론에 입각하여 해석하곤 했다. 또한 ‘자강(自強)’이란 용어 역시 주역의 ‘자강불식(自彊不息)’에서 나온 말로써 시대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령론이 개인의 주체적 자기인식을 강조하였다면 주역의 변통론적 사고는 시대에 따른 자기 변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박은식은 주체적 자기 인식의 결과가 당시 현실에 대한 자기 변화로 이어지길 바랐다고 할 것이다. 즉 그는 종교를 통해 과거가 아니니 미래지향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주체적 인간관의 형성을 추구했던 것이다.

박은식이 이렇듯 종교적 자기 인식을 통해 근대적 민족주의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근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보다는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는 심화되고 발전할수록 객관보다는 주관에 치중하여 현실적 문제보다는 개인의 비합리적 신앙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기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일반론적으로 박은식이 종교를 통해 민족주의를 추구한 방법론이 가장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박은식이 대동교를 창설하고 「유교구신론」을 발표할 시점인 1909년은 비록 조선이라는 국명은 있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 통감부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었고, 국가혼백론(國家魂魄論)과 그 안에서 국교론(國教論)을 제기한 1915년의 경우는 이미 국가가 일본에 의해 강제 병합되어 그나마 있던 민족 교육까지 금지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일제가 운영한 공적 국가체제는 오히려 조선의 민족주의를 부정하던 때로 식민지 한국 내 제종교의 활동이야 말로 조선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은식의 종교론이 당시와 같은 식민사회 속에서 한민족에게 국가 독립과 지속적인 대일투쟁을 위해 선택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 양명학적 유교구신과 민족주의

박은식의 유교구신 또는 유교개혁은 주로 1909년 발표한 「유교구신론」만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유교개혁의 방향을 평민중심, 구세주의, 간결성 및 실천성만을 주장하고 그의 양명학적 유교의 또 다른 특징인 ‘양지를 통한 개인의 주체성 확립’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은식이 유교의 종교화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특징을 보기 위해 그의 사상을 간결성·실천성과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그의 유교 개혁의 출발은 서구를 수용하여 우승열패의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의 국가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현실 인식에서였다. 하지만 이런 사고의 근원에는 조선 유교를 동아시아 유교의 정통으로 보는 조선중화주의가 있었다. 이는 조선의 유교를 중국의 것과 비교해서 설명한 다음의 지문에서 엿볼 수 있다.

지금 서구인들이 중국인들을 비웃으며 “중국 사람들은 각각 공맹(孔孟)을 존송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교를 숭상한다고 하니, (중략) 오직 우리 한국만이 공부자(孔夫子)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으뜸으로 본받아, 실제 국기(國紀)로 육경(六經)과 사서(四書)를 삼았다. 멀리 떨어져서 도통(道通)을 이어 받아 예의(禮義)를 현실에 맞게 고쳐 밝혀 풍속에 뿌리내리게 한지가 장구하다.<sup>14)</sup>

14) 今西人之譏華人曰，華人各尊孔孟，而實則崇佛。 (중략) 惟我韓，宗師夫子之三綱五倫，實爲國綱。六經四書，遠紹道通，修明禮義，扶植風化，其來久矣。 박은식, 『謙谷文稿·宗教說』

그에게 유교는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였다. 그러기에 그는 당시 국제질서에 부응하지 못한 조선의 상황의 원인을 유교정신이 올바르게 발현하지 못한 데서 찾았다. 하지만 그가 도통론과 화이론에 집착하여 유교정신의 구현을 서구 수용의 부정으로 보는 보수적 유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전통 유교의 사변화를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교를 지향했던 인물이었다. 이런 그에게 일본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배경인 일본양명학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삼십 년전 일본에 존양파는 왜국의 의론이 성행할 때, 이미 서양의 법이 일본보다 우세함을 깨닫고, 서양을 수용하고 익히며 또한 모방하고 시행하여 이로써 금일에 이르러서는 (서구와 맞서는 국가로) 융성하게 되었다.<sup>15)</sup>

그가 일본양명학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한 개혁유교의 성격은 간결성과 실천성이었다. 당시 조선 유학 즉 성리학은 호락논쟁의 여진이 강한 사변성으로 남아 있었고, 이어서 또 다른 사변론인 심설논쟁이 출현하는 형세였다. 또한 이항로 계열의 보수파들은 국가보다는 유교 도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당시 조선의 서구적 변화를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므로 박은식이 이런 보수적 전통 유교계를 대신할 새로운 유교 구신 또는 개혁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1900년 초 그의 양명학에는 간결성과 실천성을 강조하여 서구 근대화의 국가적 수용이 강했지만, 원래 양명학과 주자학의 충돌 지점이었던 격물치지론(格物致知論), 친민론(親民論) 등에 대한 그의 입장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1909년을 기점으로 그의 양명학에는 ‘양지’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양지론의 출발점은 1905년 을사늑약이었다.<sup>16)</sup>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은 을사늑약을 극복하기

15) 日本在三十年前尊壤之論，鎖港之議盛行於國中，既而旅覺西法之勝於己，遂學而習之，倣而行之，以臻今日隆成。 박은식, 『學規新論論學要遜之』

16)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독자적인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

위해 대한정신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 기존 일본 양명학에서 추진한 서구 수용을 통한 전통의 근대적 변화와 동시에 자기와 타자를 구분 짓는 자기정체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維茲 大韓이 卽 吾祖國이라 三千里 疆域은 是吾家族之攸宅이  
 오 四千年 文物은 是 吾家族之世傳이라. 我 二千萬 同胞의 祖祖  
 父父子子孫孫이 血脈相承호야 具有其性命肢體者가 惟 是 大韓  
 精神之所凝結也오 德業相勸호고 義理相磨호야 與生俱存호고 抵  
 死不捨者도 亦惟是 大韓精神之所貫徹也니<sup>17)</sup>

여기서 말하는 대한정신은 바로 한민족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이 자강 또는 대한정신이 반드시 보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유교의 원래 모습을 변화발전 즉 변통(變通)으로 해석하였다.

尙書에 曰作新民이라호며 孟子ㅣ 曰亦以新子之國이라 호섯거  
 늘 奈何로 今之儒者는 舊만 墨守호고 新을 牢拒호며 易에 曰窮  
 則變호며 變則通이라호고 中庸에 曰明則動호고 動則變이라호였  
 거늘 奈何로 今之儒者는 變을 惡호고 通을 忌호야 冬에 葛호며  
 夏에 裘호며 陸에 舟호며 川에 車코저호느뇨.<sup>18)</sup>

그는 유교를 통해 신(新), 변(變), 통(通), 동(動)을 모두 이룰 수 있

---

다. 때문에 이후 대한제국은 박은식이 『결곡문고』, 『학규신론』에서 기획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서구화, 근대화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국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개혁적 유교지식인들은 『대한자강회월보』, 『서우』 등의 잡지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이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즉 자강과 대한정신 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박은식의 양명학이 이진 실천성과 간결성의 차원에서 양지론으로 변하게 된 요인 역시 이같은 시대상황에 의해서였다. 그가 양지를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서우』를 계승한 『서북학회월보』의 1909년 기고문인데 이 양지론은 결국 을사늑약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개혁의 객체로만 인식되었던 ‘평등 이하의 일반 국민을 개혁의 주체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박은식 양지론이 을사늑약이라는 국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 정체성 확인 작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17) 박은식, 「대한정신」, 《대한자강회월보》 제1호, 1906. 7.

18) 박은식, 「舊習改良論」, 『서우』 2 (1907. 1)

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진정한 대한정신의 확인은 ‘국가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신변통동(新變通動)의 관점으로 결국 서구의 근대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현상을 극복할 주관적 의지의 강화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는 1909년 주도적으로 대동교를 창립하고 유교의 종교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시기 북삼도에서 흥기한 개신교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sup>19)</sup> 그래서 그는 개인의 자기 확인을 강조하기 위해 기독교의 성령을 유교의 양지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지는 민족정신으로까지 확장하게 된다. 즉 실기에서 말하는 양지는 근본적으로 양명학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1911년 서간도 망명 후 기술한 『몽배금태조』에서는 이 양지가 민족심(民族心)으로 확장하게 된다. 여기에서 그는 민족심을 원질, 본능, 진정, 본체, 능력으로 구분하고 내용을 각각 ① 虛靈不昧 清明無假 (原質), ② 眞實無僞 獨立不倚 (本能), ③ 正直不阿 剛毅不屈 (眞情), ④ 公平正大 廣博周遍 (本體), ⑤ 是非鑑別 感應神捷 (能力)으로 적고 있다.<sup>20)</sup> 이것은 그의 민족주의적 유교관이 양명학의 양지에 근거하여 기독교 성령론을 수용하면서 민족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주관적 능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현실에 대한 즉물공리적(卽物窮理的) 사고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sup>21)</sup>

그러므로 그의 민족주의적 종교(유교)관은 조선중화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하였고 이후 한국유교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히는 신도통론을

19) 김현우, 앞의 글, pp.74-76 참조.

20) 帝曰 天地間에 一大靈物이 有하야 (중략) 其名曰心(良知)이라. 此物(良知)의 原質은 虛靈不昧하고 清明無假한 者이니라 此物의 本能은 眞實無僞하고 獨立不倚한 者이니라 此物의 眞情은 正直不阿하고 剛毅不屈한 者이니라 此物의 本體는 公平正大하고 廣博周遍한 者이니라 此物의 能力은 是非를 鑑別하고 感應이 神捷한 者이니라” 박은식, 『몽배금태조』.

21) 다만, 즉물공리(卽物窮理)에 있어 그는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타자 또는 외부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 즉 서구과학의 도입이라는 진보적 현실인식의 개념으로만 한정되는 특징이 있다.

강조하였으며 1900년대 중후반 을사늑약의 국망의 위기 속에서 조선인이라는 자기정체성의 확인과 개신교의 성령론 등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주체적 도덕의지인 양지를 강조하는 양명학으로 대체되었다.<sup>22)</sup> 나아가 일제 초기에 저술된 『몽배금태조』(1911)에서는 개인적 자기도덕의 근거인 이 양지를 민족의 주체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민족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박은식이 제종교 교리를 유교의 양지론으로 통합하여 항일 민족주의로까지 승화시킨 것은 민본(民本)이나 대동(大同)이라는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1917년 이후 러시아 혁명과 1차 대전 종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등 평화주의적 세계 흐름에 대해 그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세계사조가 사회진화론적 질서에서 대동사상으로 흐르게 되었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가 일면에는 비합리적이라 평가할 있는 종교와 그 교리를 통해 민족주의를 추구한 것이 반드시 타당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3.1운동 이후에는 종교적 민족주의에 대한 언급이 급격히 줄어 든 점으로 보아 사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독립시키고 이를 위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에게 종교

22) 1909의 박은식의 「유교구신론(儒教求新論)」 및 대동교 창설, 그리고 양지론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는 다른 시각이 있다. 이종란은 「유교구신론」을 중국 양계초의 「논지나종교개혁(論支那宗教改革)」(1899)과 비교하면서 전자가 후자를 기반으로 재구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란, 「박은식의 유교구신론과 공자관」, 『공자학』 3, 1998, p.231 참조) 그러나 양계초(梁啓超)의 논문과 「유교구신론」은 약 10년의 차이가 있는데 「유교구신론」이 작성될 시점에 양계초는 대동사상이라는 보편적 이론보다는 서구와 대비되는 중국 특수한 전통을 재발견하여 중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에 치중하였기에 당시 양자 간의 사상적 연관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전자가 신유교와 구유교를 총 6가지로 비교분석한 것에 비해, 후자는 3가지로만 하였고, 대상도 전자가 일본에 유학한 향신층 또는 그 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후자는 ‘평등 이하’의 국민 즉 양반층이나 유교지식인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두 논문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내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논문이라 평가된다. (김현우, 앞의 글, 2012; 김현우, 「박은식의 양계초 수용에 관한 연구」, 『개념과 소통』, 한림과학원, 2013. 6. 등 참조) 다만 그가 康有爲, 梁啓超 등의 중국의 금문학과를 추종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회진화론적 국제 질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들이 주장한 대동사상에 대해 일정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진다. (『大同學說의 問答』, 『황성신문』 1909. 4. 16. 논설 참조)

는 국사, 국어, 국문 등 여러 시도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의역 역시 그의 민족주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평할 수 있을 것이다.

### 3. 대순사상에서 나타난 근대적 민족의식

#### 1) 천지공사와 해원사상에 나타난 미래지향적 세계관

박은식의 종교 이해는 근대 한국철학과 사상사에서 기독교, 유교 등의 기존 종교가 한민족의 독립 및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그는 『한국통사』에서 신종교 중 대종교, 동학 그리고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와 시천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종교는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섬기는 민족종교로써 박은식은 1911년 서간도 대종교 촌락으로 약 1년간 망명하였고 여기서 『동명성왕전』, 『천개소문전』, 『몽배금태조』 등을 포함 총 6권을 책을 지었다. 동학에 대해서는 천도교의 항일투쟁의 근원을 동학혁명시 일본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강한 반감에서 기인한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동시에 동학이 천도교와 시천교로 분화된 것에 대해 ‘시천교는 일제의 한국 교회 박해 차원에서 동학을 친일화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그가 종교에 관심을 갖고 해석한 시기에는 아직 다양한 신종교가 출현하지 않아 신종교에 대한 그의 인식을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만약 그가 대순사상 등을 참고했다면 어떻게 평가했을 까? 여기서는 위 박은식의 민족 종교관을 통해 대순사상 속에 교리와 민족과의 관계를 추정해 보겠다.

이미 전장에서 박은식은 민족 종교의 특징을 내면의 자기 주체성과 『주역』 변통론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세계인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했다. 특히 그는 근대 제종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배경을 당시 한국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 즉 서구적 근대화와 자주적 민족주의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이 현실인식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먼저, 대순사상은 당시 사회의 혼란을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인식하고 마지막의 방법으로 상제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여 적극적인 구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상제께서 구원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시다가 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sup>23)</sup>

여기서는 세 가지의 당시 현실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는 당시 사회를 인간들의 혼란의 시기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서구의 식민지 침략 정책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혼란한 현실의 원인을 찾고자 그 피해가 가장 심한 한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구원의 길을 강구 즉 대순(大巡)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도를 직접 개입이 아닌 최수운이라는 대리자나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여 인간세계의 구원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세 번째 인식은 인간의 주체적 활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맹목적으로 개인의 의지를 신의 섭리 속에서 숙명적으로 이해하는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이를 민족주의적 특징으로 정리하자면, 당시 서구의 식민지 정책 즉 서세동점이 삼계의 혼란을 가져 온 원인이며 그 폐해가 동으로 오면서 서구 각국의 무력에 의한 침략의지가 중첩되어 동쪽 마지막 국

23) 『전경』, 예시 1절.

가인 한국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또한 이는 기존 인간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천상제인 강증산이 삼계(天·地·人)의 영역에 대한 천지공사를 통해 새로운 세계 즉 후천개벽을 열었다는 종교적 교리로 연결되고 있다. 이 교리는 당시 서세동점을 인간의 근원적인 물질적 욕심이 도덕적 심성을 억누른다는 종교적 현실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구천상제인 강증산은 갑오동학혁명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지양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삼계의 원(冤)을 해소하여 이상적 상태로 되돌리는 천지공사를 추구했다. 이 점은 어떠한 폭력적 수단도 인류 구도라는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평화적 인류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천지공사는 또한 해원사상과도 연결된다. 원이란 인류 역사에 지속된 투쟁과 번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구천상제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인류와 인류, 인류와 자연의 끊임없는 투쟁이었다고 한다. 이는 先天시기에 해당하는 질서로써, 패자는 승자에 대한 원을 맺게 되고 이 원들이 쌓여 또 다른 원으로 확장되어 갔으며 이는 천지인 삼계의 원을 해소하는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 ; 마테오리치)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을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은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다.”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의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동도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제세대도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sup>24)</sup>

여기에 나타난 종교적 교리는 ‘과거가 인류 이상이므로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거나 ‘과거의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과거 지향적 또는 순환적 역사관 및 이상사회관을 부정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바꾼 것이다. 때문에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이전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보수적 유교관 즉 요순시대를 최고의 정치적 안정기로 보는 관점과는 다른 미래지향적 세계관이라 볼 수 있고,<sup>25)</sup> 현실적으로 과거 조선의 각종 체제 특히 신분제에 대한 강한 거부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다. 즉 증산의 대순사상은 구천상제가 해원을 위한 천지공사를 마쳤기에 이후 신도들은 원을 해소하여(解冤) 과거 유교적 봉건체제 속에 구조선을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기층민의 강한 반봉건 개혁을 표출하는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원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종교적 교리를 통해 대순사상도, 박은식이 전통 유교의 민본사상을 주장하고 이성적 사변화가 아닌 구세주의적 종교로의 개혁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국가 정책에 참가하는 민지의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던 것과 같이,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해 이후

24) 같은 책, 교운 1장 9절.

25) 대순사상에서는 冤의 출발을 요순시대 발생했던 한 인간의 권력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유교에서 이상 정치라고 말하는 요순시대를 대순사상에서는 盡滅의 시조로 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책, 공사 3장 4절 참조.

26) 같은 책, 공사 1장 2절,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

후천 세상에서는 누구나 인류의 이상을 바라게 되는 사회로 변화가 될 수 있음을 밝혀 결국 국민의 주체성을 보장하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즉 천지공사, 해원사상의 대순사상 교리는 당시 개인의 자각과 근대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종교적 전제이자 사상전환의 배경이었던 것이다.

## 2) 대순사상에 나타난 개인의 주체성

어떤 종교든 근대시기로 들면서 개인의 주체성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만약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숙명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정의한다면 그 신도들은 일종의 종교적 이상에만 속박되어서 인간의 올바른 주체적 자기 판단까지 부정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일부 지도자에 의한 종교의 부정부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종교적 이상으로 미화시켜 올바른 사회 정의를 발현하지 못하는 맹목적 종교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심하면 전쟁도 발발하게 되는 일례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써 많이 보아왔다. 예로 종교개혁은 면죄부 발행하여 인간의 속죄를 돈으로 속박하려는 구교의 속명적 인간관에 맞서 신을 향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종교의 이러한 부정적 행태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종교는 항상 인간에게 종교적 자각을 요구하고 그 내부의 올바른 선을 인식하여 주체적인 올바른 삶을 살기 바란다. 대순사상이 체계를 잡아가던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암울한 역사의 시기로 제종교 역시 이런 민족적 불행을 도외시킬 수 없었다. 즉 당시 한국 또는 한국인의 민족, 사회, 역사를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한 신종교는 물론, 세계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는 세계종교 유교, 불교 그리고 새로 전래되어 강한 교세 확장을 보였던 개신교도 강한 민족주의적 특색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제 종교는 자기의 고유한 교리를 통해 민족주의를 옹호하면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sup>27)</sup> 박은식의 경우도 양지를 주체적 인식의 근거로 보는 교리를 근거로 이를 국가 독립이라는 현실적 목표의 정당성을 밝히는 원리로써 확장·강조하기도 했다.<sup>28)</sup>

종교는 자기 신도들에게 두 가지의 자각을 요구한다. 하나는 인간의 주체적 의지를 통해 신이나 종교적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러한 종교적 자각을 현실에서 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자는 신에게로의 향하는 상승이고 후자는 다시 현실로 내려오는 하강의 의미이다.<sup>29)</sup> 기독교의 성령이나 유교의 양지는 신이나 이상정치를 향한 정념과 경건이 내적 자기 주체성의 인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동시에 역으로 현실의 삶의 의식과 도덕 등의 변화는 종교적 신앙에 근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막스베버(Max Weber)는 바로 '서구 사회에서 개신교에서 자기 구원을 확언하려는 욕구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근대적 사회체제를 만드는 첫걸음'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sup>30)</sup>

대순사상에서도 『장자』나 『대학』처럼 상승과 하강이라는 패턴을 통해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출발은 구천상제가 천지공사를 통해 인류는 과거 모순된 진멸의 시대에서 벗어나 후천선경의 길을

27)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일제가 유교 부흥이라는 명목 하에 성균관을 경학원으로 개칭하고 유림들을 통제하는 한민족 통치를 실시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천도교의 분파인 시천교는 친일파이라고 명시하였다. 기독교에 경우도 식민통치에 종교적 교리를 이용하기 위해 자국 출신의 선교사를 파견하기도 하는 등 당시 한국 제종교 속에 담겨진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경계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가속화하거나 또는 어용 종교를 창설하여 일제 통치에 유리한 교리를 만들어 포교하였다. 박은식, 『韓國痛史·第60章 日人束縛各教會』 참조.

28) 박은식, 「학의 진리(진상)를 의로 좇아 구하라」, 《동아일보》 1925. 4. 3; 4. 6.

29) 동아시아 고대 철학과 종교에 있어 이러한 상승과 하강은 자주 나타난다. 『莊子·逍遙遊』에서 '鵬是也 北溟으로 날아가기 위해 9만리를 상승한다.'는 것이나 대학에서 '格物→致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상승과 '天下平→國治→家齊→身修→心正→意誠→知至→物格'의 하강을 동시에 설명한 것 등이 그것이다.

30) 막스 베버(Max Weber),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열었다는 교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인류가 상제가 열어놓은 후천선경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은 대순사상의 현실적 이상체인 지상선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신이라는 종교적 수양을 따라야만 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제의 천지공사에 의해 규정되는 대상이 아니라 상제와 함께 후천선경에 참여하는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대순사상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후천선경이 가능해졌지만, 동시에 개인의 능동적 행위에 의해 주체적 참여를 요구하는’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역으로 선천의 진멸상황은 인간의 원 즉 욕심에서 나온 것이므로<sup>31)</sup> 인간 자신이 원에 종속되지 않으려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후천에서도 상제의 뜻에 동참할 수 없고 동시에 진정한 인간 즉 지상선인이 될 수도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주체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32)</sup>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이고 성사는 재인이라.<sup>33)</sup>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쓴다.<sup>34)</sup>

동시에 신인간은 그 체질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샐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sup>35)</sup>

31) 대순사상에서는 冤의 출발을 요순시대 단주의 잘못된 권력욕으로 보고 있다. 『전경』 공사 3장 4절.

32)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33) 같은 책, 교법 3장 35절.

34)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하지만 대순사상은 주체적 능력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객관 현실도 중시 여겼다. 천지공사에 의해 미래에 인간계는 체계적인 도수에 의해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세상이었다. 현대 문명 역시 이러한 도수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후천선경에 반하는 세상 즉 일제강점 같은 과거 진멸시대의 행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순사상은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명과 인간이 합일한 신인간은 현실적으로 반일적 저항 인간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천상제는 동학혁명의 진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전봉준, 明淑은 字)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sup>35)</sup>

이런 언급은 전봉준을 통해 신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개인의 수도 역시 후천선경의 정신에 담긴 미래지향적, 인류평등적 정신에 부합하는 인간상의 반영이다. 이런 삶을 사는 신도들은 또한 현실에서와는 달리 어떤 형식으로든 종교적 보상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수도가 결코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발현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의 삶을 대순사상에서는 수명과 복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구천상제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수명과 복록에 대해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복록이란 인간 삶의 질적 개선이라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데 이 역시 복록이라고 할 것이다. 동시에 일제강점기 한반도는 한국인이 주인이면서도 주인답게 살지 못

35) 같은 책, 교법 3장 4절.

36) 같은 책, 교법 1장 2절.

하는 복록이 부족한 사회였다.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삶의 복록을 추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식민지체제 극복과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천상제를 따르는 종교 세력들이 일제의 각종 탄압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sup>37)</sup> 이는 미래지향적이며 인간의 보편적 삶의 개선이라는 구천상제의 교리와 정신이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반일의 정서를 불어 넣은 것으로, 인류의 평등과 보편을 추구하는 종교적 교리가 국가나 사회의 난제를 만났을 때 민족주의적 특수성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라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한민족을 일명 ‘단일민족’이라 표현하면서까지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강했던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신종교인 대순사상이 미래지향적 종교관과 동시에 강한 민족의식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 IV. 결론

종교는 현재 인류사회에 다방면의 영향을 미쳤다. 그 출발은 대개 인류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비록 서구의 암흑시대나 구한말 보수적 유교계처럼 교조적 종교이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기도 했지만, 종교가 인류에게 준 주체적 자기인식은 인류가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게 한 중요한 정신의 혁명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 사회도 유교, 불교 등의 전통종교와 기독교 등의 전래 종교 그리고 신종교 등의 영향으로 현재의 근대적 사유가 안착하게 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구한말 한국 근대성의 지향점은 반봉건 근대

37) 일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신종교 운동을 탄압했는데, 특히 1938년 ‘유사종교해산령’을 통해 100여개의 한국 신종교를 탄압하였고 그중에서 증산 강일순에서 파생된 교단인 태극도, 증산대도교, 보천교, 제화교, 태을교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화와 반외세 자주독립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유교계의 주류적 사고는 보수화와 사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반동적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박은식, 장지연 등 개혁적 유교 지식인들은 전통 유교를 재해석하고 민본사상, 양지 등을 통해 근대화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기도 했다. 나아가 개혁적 지식인 중 일부는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 특히 개신교로 종교를 옮기거나 다수의 민족적 신종교에 귀의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특히 구천상제인 증산 강일순을 모체로 하는 신종교들에 경우, '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한 해원'을 믿음으로써 ① 미래지향적 세계관과 ② 개인의 주체적 의식을 교리로 갖게 되었다. 이 교리는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강하게 결합하면서 신도들에게 은연 중에 반일정서를 낳게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일제에 강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박은식이 증산교단 활동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거나 기술하지 못했지만,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 민족의 존재를 확인하고 독립의 정당성을 추구했던 박은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제증산교단의 민족주의와 항일투쟁에 대해 깊은 관심과 찬사를 보냈을 것이라는 추측할 수 있다.

인류에 있어 종교의 역할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지대했다. 그들은 보편적 교리를 통해 인류의 행복을 지향한다. 하지만 인류의 행복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 종교는 이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무기로 될 수 있다. 종교의 민족주의적 편향성과 특수성은 보편 지향의 전제하에 항상 교리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민족역사에 대순사상을 포함 강증산을 추종한 제증산교단의 민족주의적 교리는 특별히 강조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신도들에게 근대민족주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종교적 시대정신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류의 원대한 현대 정신의 창구로 확대, 발전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김현우, 「양계초와 박은식의 신민설과 대동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노관범, 「대한제국기 박은식과 장지연의 자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 박은식, 『백암박은식전서』, 동방미디어, 2002
- 박정심, 「박은식의 사상적 전환에 대한 고찰」, 『한국사상사학』 12, 1999
- \_\_\_\_\_, 「백암 박은식의 철학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신용하, 『박은식의 사회사상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_\_\_\_\_,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사회사』, 서울: 나남출판사, 2004.
- 윤병희, 「백암 박은식의 역사의식: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학논총: 수촌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탐구당, 1992.
- 이경원, 『한국 신종교와 대순사상』, 서울: 문사철, 2011.
- \_\_\_\_\_,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정대진, 「해원상생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4, 1998.
- 최영진, 『유교사상의 본질과 현재성』,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 《대한자강회월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동아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www.kinds.or.kr>
- 《서북학회월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서우》,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Abstract▪

## The Nationalistic Characters of Daesoon Thoughts through Pak Eun Sik's National Religion Theory

Kim Hyon-woo

Sungkyunkwan University

There are many modern elements in religions appeared in the early Korean modern era. From the nationalism perspective, most religions had tendencies toward anti-feudalism and anti-foreign power. Pak Eun Sik(朴殷植) emphasized the importance to explain those religions as the National Religion in his writing 《Korea Painful History(韓國痛史)》. That is, he realized those as one of Korean spirits or souls keeping Korean identities like the Jew's Judaism or the Turk's Islam. In the paper, I try to analyze religions on Kang Jeung San(姜甌山) with Daesoonjinri-hoe as the central figure from Pak's perspective.

In the early Korean modern era when Kang went his own the Savior way, Korea and its society got into uncontrollable confusion because of strong demands both of a feudal-state breaking and against pillaging foreign-power especially Japan. For all countries of the world, it is difficult to change from a feudal state into the modern nation state to keep existing society order. Because the reformation under old social systems means the incomplete

reformation. So in this era new religions showed the neglected class of people the vision of new society.

Meanwhile Korean society try to become a modern state, and now became a recognized modern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debate on groups and their roles for Korea modernity in that time especially new religions. Since Korea independence, new religions including Daesoonjinrihoe have not receive good reviews because of a certain religion group expansion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 and control toward new religions. Till today, I think, Independence Movement as well as reform of modern awareness have not relatively receive reasonable reviews. So I hope to serve as a momentum that in early Korea modern era new religions receive reasonable and positive reviews.

**Keyword** : Daesoon thoughts, Chungsan Kang, nationalism,  
Korea new religion, Pak Eun Sik, national religion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3월 9일